

속한 공업화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자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를 계획하였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인 교통체계와 굴절버스, 자원재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는 생태하천이 잘 갖춰진 도시로 심한 수질오염을 해결하고자 환경정책을 유지하고 실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생태공원, 옥상의 생물서식공간, 대체습지 등을 조성하고 도시 내 비오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에콜로니아에서는 단지 내 습지를 조성하여 과도한 강우로 인한 유출을 조절하고 소규모 홍수를 조절하여 물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있다.

독일 하노버시에는 빗물을 이용하여 친수환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넓은 지역에는 생태적인 호수나 연못을 조성하여 단지차원에서 외부의 강이나 하천을 이용한 물 순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베를린에서는 도시의 중심에 거대한 녹지공간을 두고 이를 도시외곽으로 확장시키는 공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 생태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등을 조성하였다.

영국 반에름스에는 다양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야생생물들이 서식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옥상 생물서식공간으로서 옥상 공원을 조성하여 건축물 상부에 초지, 교목림 등 다양한 형태의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새로운 서식처로서 사람들의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도시개발 및 단지개발에서 도시의 열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바람통로를 고려하여 도시를 설계하고 있다.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는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분지형태의 도시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외곽에 신선한 바람이 형성되는 녹지를 확보하고 도시안으로 바람길을 유도하